

## 깜짝 단일화... 혼란의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또 철수... 이재명-윤석열 일대일 구도로 재편 위기의식에 호남 민심 결집... 단일화 '역풍' 조짐도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5일) 전날인 3일 새벽, 극적으로 성사된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초박빙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4자 구도였던 대선 구도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일대일 대결 구도로 재편된 데다 여론조사 공표도 이뤄질 수 없어 민심이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후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단일화 시기도 늦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약해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 민심 결집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호보완적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 정권교체의 흐름이 더 강해지면서 대선의 승기를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와 공동정

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이들은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독자 원주 의사를 전명했던 것에서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 "개인적인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그(정권교체)의 대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지난달 13일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제안한 뒤 줄곧 난항을 겪었지만, 전날 밤 마지막 TV 토론 직후 후보 간 담판 회동이 성사되면서 극적으로 물꼬를 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계기로 서로 지지 세력이 총결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이 이번 단일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선거 막판에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는 카운터펀치를 맞은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단일화가 성사된 데다, '단

일화 변수'가 이미 표심에 충분히 반영, 별다른 파괴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시 재연된 '철수 정치'에 실망한 여론도 크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갑작스런 단일화가 이 후보와 민주당 지지층의 총결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를 전격 선언한 뒤, 민주당 지지층이 대결집한 '전례'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베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극심한 진통을 겪던 후보 단일화를 극적으로 성사, 50% 안팎을 넘나드는 정권교체의 민심을 담은 그릇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권교체 여론 결집으로 이어지면서 박빙의 판세에서 벗어나 대선 승리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후보 단일화의 심리적 효과는 3%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여론 지지층의 결집 등을 경계하며 막판까지 총력전을 다한다는 입장이 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서민의 발' 전남 버스 멈추나 코로나19 장기화 경영난 심각

### 시의· 시내·농어촌버스 매출액 코로나 이전 대비 43.84% 감소

'서민의 발'로 불리는 노선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남지역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라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4개월간 전남 시외(고속버스 제외)·시내·농어촌버스 전체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2248억7000만원(43.84%)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시외버스다. 시외버스(직행버스)는 무려 1768억3000만원(55.12%)나 줄어 전체 손실금액의 78.6%를 차지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342억원(23.4% ↓), 농어촌버스 139억원(30.0% ↓) 등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시외(직행)버스로 2020년 1월 말 554대에서 올해 1월 말 현재 472대로 14.8% 줄었다. 그마저도 현재 등록된 버스의 35%(166대) 상당은 휴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는 등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 버스업계는 서민들의 교통편의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구책을 마련, 30~40% 감축

운행과 직원들의 유·무급 휴직으로 운송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좀처럼 매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더 이상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지역 버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반복되는 무급 휴직으로 버스회사 일부 직원들은 휴직기간 택배와 음식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버스는 정부나 지자체의 통제를 받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이라도 인가된 운행횟수를 채워야 하고, 요금도 인상할 수 없다.  
2020년 12월 신청한 시외버스요금 조정도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기재부가 지금까지 결정을 유보하고 있어 요금 인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지원에는 인색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버스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노선버스업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원과 적정 운송원가를 반영한 요금조정,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상시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지역 버스업계 관계자는 "운송사업자가 코로나19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불가능하고,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업계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사전투표

### 광주·전남 394개 투표소 운영 코로나 확진·격리자는 5일 투표

4~5일 이틀에 걸쳐 광주·전남 394개소를 비롯한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 차인 5일 방역당국 안내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관련기사 2면>  
3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 대선 사전투표소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97개소, 297개소가 운영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

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더불어민주당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1**

에너지·디지털 전환의 중심으로  
**이재명이 전남권을 바꾸겠습니다!**

광주를 인공지능과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국가주도 광주군공항이전, 기존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 AI 융합 메타버스 신산업, AI 반도체 단지 조성
- 그린수소 생산기지, 해상풍력 연계형 RE100 산단 구축

전남을 신해양·친환경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 에너지대전환 중심지 조성, 우주발사체 등 첨단전략산업육성
- 문화·해양·생태관광 중심지, 미래 농수축산업 핵심거점 조성
- 공공보건의료 기반과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